초·중·고 학습자의 아이러니 이해 양상 연구

정혜승*

<차 례>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수행
Ⅳ. 연구 결과와 논의
Ⅴ. 결론

Ⅰ. 서 론

언어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직접적인 방식보다 간접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간접적인 방식은 화자가 의도한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 문자적 의미와 화자의 의도된 의미가 다르게 표현되는 의사소통 방식을 뜻한다. 이런 간접적인 방식에는 겉보기에 양자 사이에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표현(은유), 양자가 반대로 보이는 표현(아이러니), 공정하지 않게 과장된 표현(과장)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이러니는 오랫동안 표현법의 한 가지로 간주되어 왔다.[1] 이 말은

*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metajhs@gin.ac.kr

1) 아이러니는 오랫동안 수사법의 일종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단순한 수사적 기교의 일종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사유의 방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Behler(1990)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문학과 철학의 담론에서 아

'뜻하고자 하는 것의 반대의 말을 하는 것', '어떤 것을 말하면서 다른 것을 뜻하는 것', '비난하기 위해서 칭찬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것', '비웃고 조롱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Muecke, 1970 : 32). 일반적으로 아이러니는 말해진 것과 말하고자 하는 것 사이에 상반성을 보이는 언어적 표현으로 이해된다.[2] 청소가 되지 않아 어지럽혀진 아이의 방을 보고 엄마가 '방이 참 깨끗하구나!'라는 말을 했다면 엄마는 방이 더럽다는 뜻을 아이러니로 표현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아이러니를 말하는가? 더러운 방을 보고 '방이 더럽구나.'라고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상반된 표현을 사용하여 아이러니하게 말하는가?

그것은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 곧 아이러니가 수행하는 화용론적 기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방이 참 더럽구나.'는 직접적 표현은 단지 방의 더러운 상태를 드러내는 서술적 기능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데 비해, '방이 참 깨끗하구나.'라는 아이러니는 방의 상태에 대한 사실적 진술 이외에 엄마의 불쾌한 감정이나 방을 깨끗이 치우지 않은 것에 대한 힐난의 태도가 추가되고, 때론 강조되어 청자에게 전달된다. 또는 엄마가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눈을 찡긋하는 비언어적 동작을 취하면서 과장된 어조로 이런 말을 한다면 엄마가 유머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아이러니는 다양한 상황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한다. 화자는 다양한 화행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러한 아이러니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한다.

아이러니가 화자의 의도된 의미와 상반된 언어 형식을 취하는데다가 다양한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일은 종종 어려운 과업이 되기도 한다.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은 표현된 의미와 화자의 의도된 의미 사이의 상반성을 인식하는

이러니를 핵심적인 주제로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이 연구는 아이러니를 중요한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로 이해하면서, 담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소통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아이러니는 언어적 아이러니, 상황적 아이러니, 극적 아이러니로 분류되는데, 이 연구는 언어적 아이러니를 대상으로 한다.

상위언어능력(metalinguistic ability), 문자적 의미 이면에 포함된 화자의 의도 및 아이러니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아이러니는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아이러니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학 이론에서 아이러니의 개념과 기능을 이론적으로 탐구하거나 작품에서 아이러니를 분석한 연구가 수 편 있을 뿐이다. 최근 화용론에서 아이러니의 성격을 탐구하는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3] 국어교육에서 아이러니에 대한 연구는 김성진(1994), 임경순(1995), 문영진(2006)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수가 매우 적다.[4] 특히 아동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발달적 측면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양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아이러니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는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이해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또 아이러니의 언어적 형태에 따라, 즉 구어적 아이러니와 문어적 아이러니 이해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5] 이 연구는 아이러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양상뿐만 아니라 상황 맥락 속에서 화자의 의도와 태도를 파악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대한 이해는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에 대한 지식을 제고하고, 교육 내용을 선정,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3) 국내에서는 문순표(2003), 임소정(2006), 국외에서는 Dews(1995), Gibbs & Izet(2005)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아이러니의 화용론적 성격과 기능을 파악하는 데 논의의 중점이 있다.

4) 이들 연구 중 문영진(2006)은 서사 교육을 위해 아이러니의 교수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아이러니 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5) 일반적으로 '구어'와 '문어'는 언어 스타일과 관련되는 개념이나, 이 연구에서는 각기 음성언어, 문자언어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구어적 아이러니'는 '음성언어로 표현되는 아이러니'를, '문어적 아이러니'는 '문자언어로 표현되는 아이러니'를 뜻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이러니를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

은유와 마찬가지로 아이러니는 비교적 자주 사용된다. 문학적 텍스트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Dews & Winner (1999)는 미국의 인기 있는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에서 아이러니는 평균적으로 매 30분마다 네 번씩 쓰이며, 현대 미국 문학은 네 쪽에 한 번씩 아이러니를 쓴다고 하면서 아이러니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아이러니를 자주 사용하는 것일까?

앞서 잠시 논의한 것처럼 사람들은 복잡한 사회적, 의사소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러니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화자는 청자나 대상에 대한 미묘한 감정과 태도를 전달하기 위해 아이러니를 사용하지만, 유머를 표현하기 위해(Long & Graesser, 1988), 설득하기 위해(Gibbs & Izett, 2005), 청자의 적극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기 위해(Colston, 1997),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Dews & Winner, 1995), 유대 강화를 위해(Gibbs & Izett, 2005) 의도적으로 아이러니를 이용한다.

이렇듯 아이러니가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면 아이러니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 의도한 의미와 표현된 의미가 상반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뜻한다.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에 담긴 다음 세 가지 정보를 이해해야 한다. 문자적 표현 이면에 숨겨져 있는 화자의 의도된 의미, 화자가 발화에서 언급하는 대상 및 청자에 대한 감정과 태도, 화자가 기대하는 청자의 감정적 반응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두 대학생의 대화를 보자(Gibbs, 2000 : 7). 멜리사와 친구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전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멜리사의 룸메이트인 자넷이 자신의 방안에서 듣고 있다.

자 넷 : (자신의 방에서 큰소리로) 너 또 내 얘기하는구나?
멜리사 : 난 자넷 너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너에 대해 얘기하는 것뿐이야, 난 늘 그래.
자 넷 : (웃으며) 네 삶을 찾아!

이 대화에서 두 사람은 아이러니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자넷은 멜리사가 친구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마음에서 발화를 시작한다. 그러나 멜리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이 그녀가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님을 알아차린다(문자적 표현 이면에 숨겨져 있는 화자의 의도된 의미 인식). 그리고 자신에 대한 멜리사의 감정이나 태도가 우호적이고 호의적이라는 것을 파악하며(화자의 발화 대상 및 청자에 대한 감정과 태도 파악), 나아가 멜리사가 자신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오해를 풀고 유머를 유발하려고 기대한다는 것을 인식한다(화자가 기대하는 청자의 감정적 반응 이해). 멜리사의 아이러니에 대한 자넷의 충분한 이해는 다시금 그녀로 하여금 '네 삶을 찾아!'라는 아이러니를 사용하게 한다. 이와 같이 아이러니를 이해한다는 것은 문자적 표현 이면의 의미 인식, 대상과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파악, 화자의 청자에 대한 기대 반응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이처럼 아이러니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정보와 그에 수반되는 화용적 기능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과업이 아닐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은 문자적 표현과 의도된 의미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다음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읽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독후감 중 일부이다.[6]

이야기는 김첨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김첨지에게는 아내가 있다. 근데 그 아내는 맨날 김첨지라는 사람에게 맞고 욕 들으고 맨날 아내에게 못

6) 인용한 글들은 인천시 계양구 소재 ㅇ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 31명이 독후감 쓰기 과제로 2007년 9월에 제출한 것 중 일부를 수정 없이 학생의 글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학생들의 독후감을 수집하고 인터뷰를 도와준 전지영 선생님에게 감사드린다.

살게 굴었다. 김첨지가 일을 나가려는대 병이 든 아내가 나가지 못하게 잡았다. 김첨지는 뿌리치고 나갔다. 김첨지는 너무 냉정하다. 아내가 불쌍함. 너무 슬픈 이야기다.

나는 운수 좋은 날을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너무 가난한데다 아내가 아프고 그리고 김첨지는 너무 나쁘다. 아내가 아프고 배고픈데 아내한테 욕을 하고, 때리고, 욱박을 지르다니 아내 정말 불쌍하다. 나는 김첨지라는 사람을 패고 싶다.

이 이야기는 김첨지라는 사람의 이야기다. 이 사람에게 아내가 있다. 하지만 김첨지 사람은 아내를 맨날 때리고 욕하고 맨날 못살게 굴었다. 아내한테 잘해주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독후감에서 주인공 김첨지가 아내에게 욕을 한 행동을 비판하며, 정서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7] 김첨지가 아내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아이러니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운수 좋은 날'의 아이러니에 대한 초등학생의 이해 부족은 작품 제목에 대한 이해에서도 드러난다. 독후감을 작성한 학생들 중 6명에게 "왜 작가가 제목을 '운수 좋은 날'이라고 붙였을까?"라는 질문을 하였더니, '아내가 죽었지만 아내한테 설렁탕을 사 줄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었으니까', '남편이 냉정해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못 사줬는데 마지막에 사 줄 수 있어서', '술 퍼먹고 가서 아내가 죽었는데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와 같이 제목의 아이러니성을 이해하지 못한 반응을 보인 학생들이 4명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초등학생들이 '운수 좋은 날'의 아이러니에 대하여 문자적 표현 이면에 숨겨진 의도된 의미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첨지의 욕이 아동들에게 단지 욕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운수 좋은 날'은 그저 운이 좋은 날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8]

---

7) 독후감을 작성한 31명의 학생 중 29명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고, 2명만이 김첨지가 욕을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임을 인식하였다. '김첨지는 자기 아내에게 욕을 해댔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다.'와 같은 반응이 2명에게서 나타났다.

"왜 작가가 제목을 '운수 좋은 날'이라고 붙였을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6명 중 나머지 2명은 '김첨지가 운수 나쁜 것을 잊기 위해서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한 것이다.', '아내의 죽음을 잊기 위해, 그냥 흘려보내기 위해서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한 것이다.'와 같이 제목의 아이러니성을 일부 인식했으나 작가의 의도 파악에는 이르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아이러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파악해야 하는 요인인 '아이러니에 담긴 대상과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화자가 기대하는 청자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이러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에 담긴 세 가지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아이러니 이해 요인과 아동의 아이러니 이해

이와 같이 아이러니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아이러니 이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상위언어능력이다. 상위언어능력은 '언어에 대하여 숙고하고 평가하는 언어적 직관'(Hakes, 1980 : 1), '언어의 속성과 본질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Van Kleek, 1982 : Gombert, 1992 : 3 재인용), '언어와 그 사용에 관련된 상위인지의 하위 분야'(Gombert, 1992 : 13)로 정의된다. 요약하면 상위언어능력은 언어를 사고의 대상으로 삼는 상위인지능력(metacognition)의 한 부류이다.[9] 언어 자체에 대하여 사유하고, 반성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상위언어능력인 것이다. 상위언어능력이 있어야 언어에 대해 인식하고, 언어 및 그 사용의 적절성과 적합성, 정확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8) 물론 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아이러니와 관련된 학습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데다가, '운수 좋은 날'이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작품인 데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9) 상위언어능력을 상위인지능력을 구성하는 한 분야로 보는 관점은 Tunmer & Bowey (1984)에서도 볼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데 상위언어능력은 필수적이다. 언어로 표현된 것과 화자가 의미한 것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상위언어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표현된 언어가 특정한 담화 상황 속에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다른 의미 가능성을 탐색하고 추론하는 상위언어능력이 있어야 아이러니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상위언어능력은 언어에 대한 민감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바, 아이러니가 아이러니임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지를 인지하는 능력은 바로 언어적 민감성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아이러니는 일반적으로 '정말, 매우' 등과 같은 강조의 의미를 갖는 부사나 과장된 표현을 동반하거나,[10] 구어적 아이러니의 경우 특유의 어조나 억양과 같은 준언어적 표현, 표정, 눈빛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수반한다. 이러한 아이러니의 표지를 인식하고 이를 단서로 의도된 의미를 추론하는 데 상위언어능력이 기반이 된다.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른 요인은 담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일반적으로 담화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화자, 청자, 화제, 시공간적 배경, 화청자의 관계 등이 포함되지만,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 화자의 의도 파악, 대상과 청자에 대한 감정과 태도 파악, 화제에 대한 이해, 시공간적 특성에 대한 분석, 화자와 청자의 관계 파악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담화 상황을 구성하는 이 요인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결여되면 아이러니에 포함된 다양한 의미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화자에 대한 파악은 중요하다. 화자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러니를 정확하게 이해할 확률은 높아진다.

사람들은 화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어떤 표현을 아이러니로 이해하기도 하고,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도 한다. 일례로 사람들은 아이러니를 해석할 때 화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데, 성별이나, 직업이 그 준거가 되기도 한다. Gibbs(2000)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자보다 남자가 아이러니를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믿으며, Katz & Pexman(1997)에 의하면 목

10) '잘났어, 정말', '정말 미워 죽겠어.', '진짜 훌륭하군.'과 같이 아이러니에는 의미를 강조하는 부사나 과장된 표현이 많이 쓰인다.

사, 교사, 의사보다는 코미디언, 정치가, 공장 노동자가 아이러니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믿는다(Katz, 2005 : 190~191 재인용). 동일한 상황에 주어진 동일한 표현에 대하여 아이러니 여부를 결정할 때 그것을 말한 화자의 성, 직업 정보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해석의 참조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이러니 해석에서 화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아이러니 이해에 화자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파악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 상위언어능력으로 화자가 언어적 표현과 다른 의미를 의도한다는 것을 인식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추론해야 하는 것이다. 아이러니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담화의 문자적 형태 파악을 넘어서 화자가 아이러니를 선택한 동기뿐만 아니라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라면(Winner, 1988 : 155~156), 특정한 담화 상황 속에서 화자가 아이러니를 선택한 동기와 태도, 의도한 의미, 청자에게 유발하기 의도하는 반응을 파악해내는 일은 고도의 추론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과 청자에 대한 태도 파악은 아이러니 이해의 핵심인 바, 화자의 태도를 추론하는 능력은 아이러니 이해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상에서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요인으로 상위언어능력, 담화 상황 파악 능력, 추론 능력을 논의하였다. 그렇다면 아동들은 이들 능력을 두루 갖추고 아이러니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Winner(1988 : 137~140)에 따르면 6세 아동의 경우 지저분한 동생의 방을 보고 언니가 '방이 참 깨끗하구나.'라는 아이러니를 말했을 때 절반 이상의 아동이 아이러니가 상황과 상반된 표현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보였다. 단지 10%의 아동만이 화자의 의도를 바르게 인식하였다. 11%의 아동은 '동생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거에요.'와 같은 식으로 화자의 의도를 해석하였다. 8세 아동은 6세 아동보다 표현된 의미가 상황과 상반되고 있음을 더 잘 인식하지만, 여전히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6세, 9세, 13

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아이러니 이해 실험에서 6세 아동은 대부분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믿고 아이러니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9세, 13세 아동은 아이러니를 속임수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들이 거짓말과 아이러니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 Demorest et al.(1983)에서도 나타난다. 달리기 시합에서 꼴등을 한 형에게 '형, 오늘 정말 잘 뛰었어.'라고 동생이 말한 것을 두고, 아동들은 동생이 형의 기분을 좋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를 선의의 거짓말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학령기 이전 아동들은 문자적 표현 그대로의 의미로 아이러니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8세 이후가 되어야 의도된 의미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13세 이후에 화자의 의도와 대상 및 청자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이러니를 이해한다는 것이 문자적 표현과 의도된 의미 사이의 괴리 인지하기, 문자적 표현 이면에 숨겨진 화자의 의도와 태도 파악하기, 화자가 기대하는 청자의 반응 파악하기를 포함한다고 할 때 학령기 이전 아동은 첫 번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11세 이전 아동은 두 번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의 수행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아이러니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였다.[11] 조사 대상 학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두 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두 학급을 선정하였다. 고

11) 학교에 자료를 투입하여 조사한 기간은 2006년 12월 1일에서 28일까지이다.

등학교 역시 두 학교를 선정하였는데, 학급 수는 각 4개 학급으로 하였다. 선정된 학교는 사회경제적으로나 학업성취 측면에서 특이 사항이 없는 평범한 학교로 임의 표집하였고, 각 학교에서 특이 사항이 없는 학급을 선정하였다.[12] 초등학교에서는 2, 4, 6학년, 중학교에서는 8학년, 고등학교에서는 10학년 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847명이 대상자가 되었다. 다음 <표 1>과 <표 2>는 조사 대상 학생의 분포를 나타낸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학년별 분포

학년	학생 수(단위 : 명)	비율(단위 : %)	누적비율(단위 : %)
2	131	15.5	15.5
4	137	16.2	31.6
6	144	17.0	48.6
8	162	19.1	67.8
10	273	32.2	100.0
합계	847	100.0	

〈표 2〉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

성별	학생 수(단위 : 명)	비율(단위 : %)	누적비율(단위 : %)
남	431	50.9	50.9
여	416	49.1	100.0
합계	847	100.0	

이 연구는 아동이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아이러니를 두 가지 형태, 즉 구어적 아이러니와 문어적 아이러니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하는 도구를 만들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학년 학생을 구어적 아이러니 이해 집단과 문어적 아이러니 이해 집단으로 나누고 그에 맞는 도구를 투입하였다. <표 3>은 아이러니의 형태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분포를 요약한 것이다.

12) 연구에 협조해주신 6개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표 3〉 연구 대상자의 아이러니 유형에 따른 분포

문제전달방식	학생 수(단위 : 명)	비율(단위 : %)	누적비율(단위 : %)
구 어	423	49.9	49.9
문 어	424	50.1	100.0
합 계	847	100.0	

2. 연구 방법과 절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연령에 따라 아이러니 이해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성에 따라 아이러니 이해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이러니 형태(구어적 아이러니와 문어적 아이러니)에 따라 아이러니 이해에 차이가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2, 4, 6, 8, 10학년 학생 847명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연구 대상자를 구어반과 문어반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구어반, 문어반으로 구분한 것은 아이러니 형태(구어적 아이러니와 문어적 아이러니)에 따라 이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구어반 학생들에게는 어조 등의 단서를 제공하는 음성 자료를 녹음하여 제공하고, 문어반 학생들에게는 동일한 내용을 글로 제시하였다.

아이러니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 형식의 도구를 개발하였다. 도구는 간단한 대화 상황을 제시하고 아이러니를 이해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문항을 개발한 다음, 문학교육과 국어교육 전공자 각 1인에게 타당성 여부를 검토 받았다. 검토 후 수정된 문항을 인천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30명에게 사전 테스트하여 발문의 모호함과 어휘 난이도 등의 측면에서 수정하였다. 수정된 문항을 다시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의 다른 학급 학생 32명에게 테스트를 실시하여 적절성을 검토, 확인하였다. 도구로 사용된 아이러니 예

시 문항을 다음에 제시하였다.

> 전학 가는 친구에게 눈물을 흘리며 영희가 하는 말,
> "너 안 봐도 되니까 신이 난다."
> →

학생들은 이 대화 상황에서 영희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직접 쓰도록 지시받았다.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별도의 처치가 없었으며, 이는 전 연구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채점을 위하여 아이러니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답안의 범주를 두 가지로 정하였다. 아이러니임을 인식하고 문자적 표현과 상반된 의미를 적은 경우와 아이러니를 말한 화자의 의도나 태도를 적은 경우가 그것이다. 가령 위 예시 문항에서 전자의 경우는 "신이 나지 않는다."와 같이 '신이 난다'는 답과 상반되는 의미를 갖는 응답이, 후자의 경우는 "슬프다, 섭섭하다"와 같이 화자의 의도나 태도를 인식한 응답이 해당된다.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4명의 국어 교사가 채점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채점 이전에 공동 채점을 통하여 채점 기준을 맞춰 채점자 간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채점은 동일 답안을 2인이 1조가 되어 채점과 확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채점 결과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Exel) 프로그램으로 기록하고, SPSS 12.0 버전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다.[13]

Ⅳ. 연구 결과와 논의

먼저 연령에 따라 아이러니 이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3) 통계 작업을 도와준 고려대 전하람 선생님에게 감사드린다.

연령별 아이러니 점수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4〉 연령과 아이러니 점수 간 평균 차이 검정

학년	N(명)	M	SD	F
2	131	5.7023	2.7194	46.942***
4	137	6.9781	2.5509	
6	144	7.0208	2.3488	
8	162	7.7222	2.2767	
10	273	8.8132	1.8084	
합계	847	7.5218	2.5103	

***p<.0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개 문항에 대한 연구 대상 847명 학생들의 아이러니 점수 전체 평균은 7.52점, 표준편차는 2.51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러니 점수가 상승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학년 학생들은 평균 5.7점으로 절반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학년에 따라,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아이러니 이해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아이러니 이해 정도가 향상되는 경향 가운데서도 2학년에서 4학년 사이, 8학년에서 10학년 사이에 비교적 큰 점수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2학년은 아이러니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불완전하며, 학생 간 이해 정도의 차이가 크다.[14] 2학년은 아이러니 이해의 초기 단계이고, 4학년 이후 아이러니를 본격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학령기 이전 아동들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아이러니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8세 이후가 되어야 달리 의도된 의미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고, 11세 이후에 화자의 의도와 대상 및 청자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선행 연구(Winner

14) 집단 내 점수 차이는 표준편차를 통해 알 수 있다.

(1988), Demorest et al.(1983))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결과로 보아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시기는 10학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0학년의 경우 평균 8.8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이 월등히 높고, 점수 분포도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에 가까운 위치에 조밀하게 모여 있어 학생 사이에 아이러니 이해 정도의 편차도 가장 적다. 학년이 낮을수록 표준편차가 커서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성별에 따라 아이러니 이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학생의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5〉 성별과 아이러니 점수 간 평균 차이 검정

성별	N(명)	M	SD	t
남	431	7.2483	2.5593	3.247***
여	416	7.8053	2.4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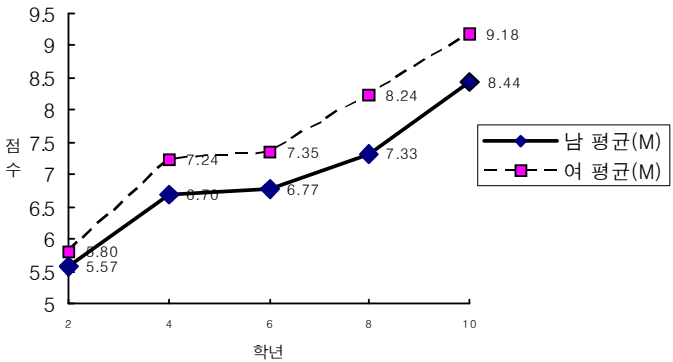
***p<.001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아이러니 이해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2, 4, 6, 8, 10학년 남학생 전체 평균이 7.2이고, 여학생 평균이 7.8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이러니를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 성별에 따른 아이러니 이해 정도의 차이가 학년에 따라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 6>과 <그림 1>에 학년과 성별에 따른 아이러니 점수를 정리하였다.

15) 이 표의 합계에서 평균은 남녀 전체 평균과 학년 전체 평균을, 인원은 남녀 전체 인원의 합과 학년 전체 인원의 합을 뜻한다.

〈표 6〉 학년과 성별에 따른 아이러니 점수

학년	남		여		합계	
	평균(M)	인원(N)	평균(M)	인원(N)	평균(M)	인원(N)
2	5.5714	56	5.8000	75	5.7023	131
4	6.6970	66	7.2394	71	6.9781	137
6	6.7654	81	7.3492	63	7.0208	144
8	7.3261	92	8.2429	70	7.7222	162
10	8.4412	136	9.1825	137	8.8132	273
합계	7.2483	431	7.8053	416	7.5218	847



〈그림 1〉 아이러니 점수의 학년별, 성별 분포

위 표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학년 전체에 걸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일관성 있게 아이러니 이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녀 학생의 점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저학년에서보다 고학년에서 남녀 학생의 아이러니 이해 점수 차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남녀의 아이러니 이해 능력 차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거의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사회언어학적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남녀의 언어 사용 방식이나 언어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이러니를 다소 더 잘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학생의 아이러니 이해 정도가 다소 높게 나온 것을 남녀의 언어 능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남녀의 언어 사용 방식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언어 발달에서 성 차이는 어휘나 문법 영역에서도 나타나지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언어 사용 영역이다(이현진 외 역, 2001 : 354). 남자 아이들이 주장을 펴고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대화의 초점을 두는 반면, 여자 아이들은 집단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남자 아이들이 연설을 늘어놓고 주도권을 가지려 하는 면이 강한 데 비하여, 여자 아이들은 좀 더 간접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고 합의를 구하려 하며, 좀 더 주의 깊게 듣는 경향이 있다(이승복·이희란, 2005 : 494).[16] 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며, 대화 상대자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이 아이러니를 더 잘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보다 아이러니를 더 잘 이해하는 이유를 언어 사용 방식뿐만 아니라 남녀의 감수성의 차이에서 찾을 수도 있다. Ivanko et al.(2004)는 아이러니에 대한 반응에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아이러니를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덜 예의바른 것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선천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 연구 결과와 해석을 따른다면 남성과 여성의 감수성 차이가 아이러니 인지 정도와 해석 능력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가 그 형태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어적 아이러니 문항과 구어적 아이러니 문항을 별도로 개발하여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16) 문화권에 따라 양상이 달리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러한 남녀의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는 생득적이기보다는 사회화 과정 속에서 문화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표 7〉 문어적 아이러니와 구어적 아이러니 간 평균 차이 검정

문제전달방식	N(명)	M	SD	t
문 어	424	7.5825	2.4779	-0.704
구 어	423	7.4610	2.5440	

***p<.001

검정 결과 문어적 아이러니 점수가 구어적 아이러니 점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경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어적 아이러니 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이는 학생들이 아이러니를 인식할 때 그것이 구어적이든 문어적이든 아이러니의 언어적 형태가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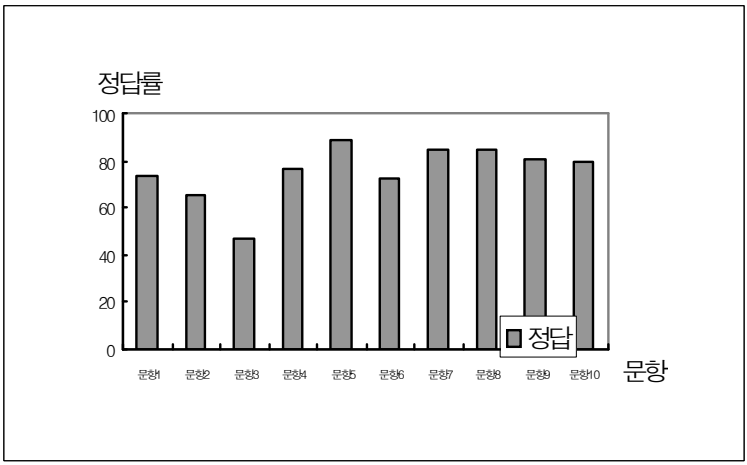
언어적 형태에 따른 아동의 아이러니 이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아이러니의 성격에 따른 차이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 경향성의 일단을 찾을 수 있었다. 다음 <표 8>과 <그림 2>는 문항별 아이러니 정답률을 정리한 것이다.[17]

〈표 8〉 문항별 아이러니 정답률

문항	정답(비율)	문항	정답(비율)
1번	623명(73.6%)	6번	614명(72.5%)
2번	551명(65.1%)	7번	719명(84.9%)
3번	395명(46.6%)	8번	720명(85.0%)
4번	647명(76.4%)	9번	680명(80.3%)
5번	748명(88.3%)	10번	673명(79.5%)

17) <표 8>과 <그림 2>는 구어적 아이러니와 문어적 아이러니 정답률을 합쳐 평균을 낸 것이다.

〈그림 2〉 문항별 아이러니 정답률



위 표와 그림에 따르면 문항에 따라 아동의 아이러니 이해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4번, 6번 문항이 다른 문항에 비해 정답률이 낮다. 이는 문항 간 난이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문항의 성격을 살펴보니 1, 3, 4번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성격이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전자는 아이러니적 칭찬으로, 후자는 아이러니적 비평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는 그것을 발화하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아이러니적 비평과 아이러니적 칭찬으로 그 성격이 분류된다. 아이러니적 비평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비평의 의도를 갖는 반면, 아이러니적 칭찬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칭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표 8>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 아동은 아이러니적 비평을 칭찬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이러니적 칭찬에 해당하는 1, 3, 4번 문항의 평균 정답률은 약 66%이고, 나머지 아이러니적 비평에 해당하는 문항의 평균 정답률은 약 79%에 이른다. 연구 설계에서 화자의 의도에 따른 아이러니 이해 정도를 비교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서 단순 평균만 놓고 아이러니 성격에 따른 이해 정도의 차이를 논의하는 것

이 한계가 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아이러니적 비평이 칭찬보다 쉽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Pexman & Glenwright(2007 : 183)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아이러니적 비평보다 아이러니적 칭찬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동들이 아이러니적 칭찬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칭찬의 의도를 지녔든 비평의 의도를 지녔든 두 성격의 아이러니 모두 아이러니의 언어적 형태가 동일한데 아동의 이해 정도에 차이가 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연구자들은 이를 학습 효과로 설명하고 있다(Pexman & Glenwright, 2007 : 183). 즉 아이러니적 칭찬보다는 아이러니적 비평이 보편적이어서 아동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아이러니적 비평에 더 많이 노출되고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덜 겪는다는 것이다.

V. 결 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아이러니 이해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초, 중고등학교급의 2, 4, 6, 8, 10학년 남녀 학생 847명을 대상으로 아이러니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이해 정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의 아이러니 이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국외의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초등학교 2학년에서는 불완전하게 아이러니를 이해하다가 4학년 이후 본격적으로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 사이에 아이러니 이해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또 남녀의 아이러니 이해 정도의 차이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아이러니 이해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일반적인 언어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이 연구는 생득적인 성 차이보다 사회화와 문화화에 따른 남녀의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 감수성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아이러니 이해에서 아이러니의 언어적 형태(구어적 아이러니와 문어적 아이러니)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아이러니 성격에 따른 차이는 제한적이나마 찾아볼 수 있었다. 즉 아동은 아이러니적 비평보다는 아이러니적 칭찬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Pexman & Glenwright(2007)에서 학습 효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이 아이러니적 비평보다 아이러니적 칭찬을 접하는 기회가 적은 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아이러니는 일상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간접표현의 하나로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에서 아이러니는 수사법의 일종으로 문학 교육 영역에서 간혹 논의되었을 뿐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아동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아이러니가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생산하는 것이 고등 수준의 언어 능력과 사고력, 상황 파악 능력을 요구하는 과업이기 때문에 아동이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정도와 그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이러니 자체뿐만 아니라 아동의 상위언어능력, 추론력, 상황(맥락) 파악 능력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의 아이러니 이해 정도를 연령, 성, 아이러니 형태에 따라 그 양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의의를 두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제한점은 아동의 아이러니 이해 과정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각 단계에 따라 아동의 아이러니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아이러니 이해 양상을 온전하게 밝힐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도 보다 정교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 성격에 따른 이해 정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도 제한점이다. 아이러니적 비평과 칭찬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체계적으

로 탐구할 수 있는 연구 설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통계 분석 결과에 의존하여 경향성만을 논의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어적 아이러니와 문어적 아이러니의 이해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이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 2, 4학년 아동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 문어적 아이러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도구 개발에 제한이 있었는데, 아이러니의 형태적 특성이 명확히 담보된 조사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에서 아이러니와 아동의 아이러니 이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후속 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7. 11. 6. 투고되었으며, 2007. 11. 9. 심사가 시작되어 2007. 11.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김성진(1994), 『아이러니를 통한 소설의 현실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순표(2003), "언어적 반어의 대비효과와 화용론적 기능", 『영어영문학연구』 29(1), 197~220,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문영진(2006), "아이러니와 아이러니 서사의 읽기 문제", 『국어교육학연구』 25, 247~281, 국어교육학회.

신송윤(1993), "아이러니의 이해", 『동국논총』 12, 동국대학교(http//cat2.riss4u.net/ExportXML?p-control-no=19570242).

이강훈·신주철 역(2005), 『아이러니와 모더니티 담론』, 동문선(Behler, E.(1990), Irony and the discourse of modernity).

이승복·이희란(2005), 『언어발달』, 시그마프레스(Owens, R. E.(2005), Language Development : An Introduction 6th (ed.). Allyn & Bacon).

이현진·박영신·김혜리(2001), 『언어발달』, 시그마프레스(Hoff, E.(2001), Language Development 2nd (ed.). Thomson Learning).

임경순(1995), 『인물 형상화 양상을 통한 소설교육 연구－채만식 풍자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소정(2006), 『아이러니 현상에 관한 연구 : 암시와 화용적 거짓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olston, H.(1997), "Salting a Wound or Sugaring a Pill : The Pragmatic Functions of Ironic Criticism", Discourse Processes 23, 25~45.

Demorest et al.(1983), "Telling It as It Isn't : Children's Understanding of Figurative Languag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 121~134.

Dews, S., Kaplan, J. & Winner, E.(1995), "Why Not Say It Directly? The Social Functions of Irony", Discourse Processes 19(3), 347~367.

Dews, S & Winner, E.(1995), "Muting the Meaning : A Social Function of Irony",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10(1), 3~19.

Dews, S. & Winner, E.(1999), "Obligatory Processing of Literal and Nonliteral Meanings in Verbal Irony", Journal of Pragmatics 31, 1579~15.

Gibbs, R. W. & Izett, C. D.(2005), "Irony as Persuasive Communication", In H. L. Colston & A. N. Katz(eds), Figurative Language Comprehension :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131~151,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Gibbs, R. W. & O'Brien, J. (1991), "Psychological Aspects of Irony Understanding", Journal of Pragmatics 16, 523~530.

Gibbs, R. W.(2000), Irony in talk among friends, *Metaphor and Symbol*, 15, pp.5~27.

Gombert, J. E.(1992), Metalinguistic Develop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kes, D. T.(1980), The Development of Metalinguistic Abilities in Children,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New York.

Harris, M. & Pexman, P. M.(2003),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Social Functions of Verbal Irony", Discourse Processes 36(3), 147~165.

Ivanko, S. L., Pexman, P. M. & Olineck, K. M.(2004), "How Sarcastic Are You? Individual Differences and Verbal Irony",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3(3), 244~271.

Katz, A. N.(2005), "Discourse and Sociocultural Factors in Understanding Nonliteral Language", In H. L. Colston & A. N. Katz(eds). Figurative Language Comprehension: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183~207,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Littman, D. C. & Mey, J. L.(1991), "The Nature of Irony: Toward a Computational Model of Irony", Journal of Pragmatics 15, 131~151.

Long, D. L. & Graesser, A. C.(1988), "Wit and Humor in Discourse Processing", Discourse Process 11, 35~60.

Pexman, P. M.(2005). "Social Factors in the Interpretation of Verbal Irony", In H. L. Colston & A. N. Katz(eds). Figurative Language Comprehension :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209~233,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Pexman, P. M. & Glenwright, M.(2007), "How Do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Grasp the Meaning of Verbal Irony?", Journal of Neurolinguistics, 20, 178~196.

Tunmer, W. E. & Bowey, J. A.(1984), "Metalinguistic Awareness and Reading Aquisition", In W. E. Tunmer, C. Pratt and M L. Herriman(eds). Metalinguistic Awareness in Children : Theory, Rresearch and Implications, 144~168, Berlin : Springer.

Winner, E.(1997), The Point of Wor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초록>

초·중·고 학습자의 아이러니 이해 양상 연구

정혜승

이 연구는 아이러니가 일상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간접표현의 하나로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가지며, 그것을 이해하고 생산하는 것이 고등 수준의 언어 능력과 사고력, 상황 파악 능력을 요구하는 과업이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의 아이러니 이해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초, 중고등학교급의 2, 4, 6, 8, 10학년 남녀 학생 847명을 대상으로 아이러니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이해 정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의 아이러니 이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국외의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초등학교 2학년에서는 불완전하게 아이러니를 이해하다가 4학년 이후 본격적으로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 사이에 아이러니 이해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아이러니 이해에 대한 남녀의 차이에는 생득적인 성 차이보다 사회화와 문화화에 따른 남녀의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 감수성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아이러니 이해에서 아이러니의 언어적 형태(구어적 아이러니와 문어적 아이러니)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아이러니 성격에 따른 차이는 제한적이나마 찾아볼 수 있었다. 즉 아동은 아이러니적 비평보다는 아이러니적 칭찬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학습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아동이 아이러니적 비평보다 아이러니적 칭찬을 접하는 기회가 적은 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핵심어】 아이러니, 간접표현, 아이러니 이해, 문자적 의미, 화자의 의미, 상위언어능력, 추론

<Abstract>

Students' Understanding of Irony

Chung, Hye-seung

Irony is frequently used as an indirect expression in daily verbal or written communications. Irony has various pragmatic functions, and people require a high level of linguistic skill, reasonable thinking, analytical ability to use and understand ironical expres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evelopment in students' understanding of irony.

An assessment scale was developed to measure understanding of irony among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A total of 847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2nd, 4th, 6th, 8th and 10th grad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tudents' understanding of irony increased with age. Second grade students' understanding was rather unstable but 4th grade students and older graders understood irony completely. This finding wa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earlier studie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s of understanding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But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showed increased levels of understanding as they aged. The differences in levels of understanding of irony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might have stemmed from linguistic ability. However, the study suggests that male and female students may be affected differently by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t the same time, male and female student can be different in commanding language and accepting irony.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students' understanding of forms of irony (verbal or written ironies).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students' understanding of characters of irony. It was found that children had more difficulty understanding ironical

compliment than understanding ironical criticism. This finding can be explained as a kind of learning effects. That is, students are more accustomed to ironical criticism than ironical compliment.

【Key words】 irony, indirect expression, understanding of irony, literal meaning, speaker meaning, metalinguistic ability, inference

부록 검사지

( )학년 ( )반 이름 ( )

녹음된 말을 잘 듣고, 말하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보기>와 같이 쓰세요.

〈보기〉

> 뛰어다니다가 그릇을 깨뜨린 영희에게 엄마가 하신 말씀,
> "참, 잘했다."
> → 조심해야지(뛰어다니지 말아라)

1. 전학 가는 친구에게 눈물을 흘리며 영희가 하는 말,
   "너 안 봐도 되니까 신이 난다."
   →

2. 미나가 영희와 싸우면서 '너 이제 나한테 죽었다.'고 말하자 영희가 하는 말,
   "에고, 무서워라. 무서워 죽겠네."
   →

3.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영희가 하는 말,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

4. 김치볶음밥이 맛있어서 두 그릇이나 먹은 영희가 어머니께 하는 말,
   "너무 맛없어서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

5. 지각을 했는데도 딴청하며 천천히 걸어오는 영희에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참 빨리 오는구나. 그래 천천히 걸어 와라."
→

6. 매연을 많이 뿜어내며 지나가는 버스를 보고 영희가 하는 말,
"저 버스는 상을 줘야 해."
→

7. 영희가 도서관에서 떠들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영희는 책을 참 좋아하는구나."
→

8. 수업 시간에 짝꿍이 방귀를 뀌자 영희가 한 말,
"너한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구나."
→

9. 친구와 놀다가 늦게 들어온 영희가 화난 엄마의 얼굴을 보고 한 말,
"너무 일찍 들어 왔죠? 내일부턴 일찍 들어올게요."
→

10.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가게 주인에게 손님이 하는 말,
"손님에게 이렇게 친절해도 되는 거에요?"
→